

재창단 9개월 만에...조선대 테니스 전국 제패

추계대학연맹전 겸 회장배
계명대 3-2로 꺾고 우승
작년 11월 10여년만에 재창단
전문지도자 없이 일군 값진 성과

조선대학교 테니스부가 재창단 1년만에 전국 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조선대는 지난 30일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겸 제33회 회장배대회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는 결승전에서 대학 명문 계명대를 3-2로 물리치는 파란을 연출했다. 조선대는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대회에서 계명대에 잇따라 무릎을 꿇었

었다. 계명대는 창단 20여년에 달하는 팀으로 체육 특기자 등 우수 선수들로 팀을 꾸리고 있다. 조선대는 10여년전 테니스부가 해체됐으나 지난해 11월 공식 재창단했다. 창단에 앞서 지난해 춘계와 추계 대학선수권에서 각각 단체전 준우승과 3위를 차지, 눈길을 끌었다. 당시 전문지도자 없이 선수들과 배구 선수 출신인 김민철(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부장이 맘 흘려 일궈낸 성과였다. 조선대는 올해도 2021춘계대학연맹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 짬뽕더위에도 담금질을 게을리 하지않은 훈련의 결과였다.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체력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게 이번 대회에서 성과를 거뒀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2시간, 훈련

등 5시간 동안 비지땀을 쏟았다고 한다. 김민철 교수는 "체력 훈련 시간을 늘린 게 효과를 본 것 같다"며 "체력적으로 밀리지 않으니 선수들이 3시간 동안 경기하면서도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가 두각을 드러낸 데는 학교, 광주시체육회, 테니스 협회 등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학교측에서는 올해부터 출전비와 훈련비를 지원한 데 이어 시체육회는 전문 지도자를 파견했다. 테니스협회에서는 회장이 사비를 출연해 시합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 여자부 결승에서는 인천대가 원광대를 3-0으로 꺾고 3연패를 달성했다. 인천대는 박령경과 김윤아, 노하림이 차례로 승리를 따내 왕좌를 지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학교 테니스부. 왼쪽부터 이경철 코치, 최호성(스포츠산업학과 3년), 최현수(스포츠산업학과 4년), 우성현(체육학과 4년), 김재환(체육학과 3년). <조선대 테니스부 제공>

'49세 철의 여인' 도로사이클 이도연의 눈물

"진짜 죽을 만큼 달렸어요"
혼신의 질주 끝에 눈물 평평
여자 도로독주 10위로 마감

"진짜 죽을 만큼 달렸어요." 한국 장애인 사이클 대표팀의 '철인' 이도연(49·전북)은 31일 도로독주에서 55분이 넘는 질주를 마친 뒤 눈물을 쏟았다. 이도연은 이날 오전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국제스피드웨이에서 치러진 2020 도쿄 패럴림픽 도로사이클 여자 도로독주(스포츠등급 H4-5)에서 55분42초91을 기록, 전체 12명 중 10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도연은 첫 패럴림픽이던 2016년 리우 대회에서 사이클 개인도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도로독주에선 4위에 올랐었다. 도전을 즐기는 그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노르딕 스키 선수로 전향해 출전한 전 종목을 완주하기도 했다. 49세의 나이에 도쿄 대회에 출전한 이도연은 이날도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난코스에 애를 먹었다. 페이스를 마칠 때면 아름다운 미소를 보였던 '철의 여인'은 도쿄에선 눈물을 보였다. "성적을 내야 하는데... 미안해요"를 연발하는 그의 고글 아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도연은 "지금까지 한 레이스 중 최고로 어려운 난이도였다. 한국에서 지도자 선생님들 말을 듣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정말 게으름 없이 훈련했는데 너무 벅찬 코스였나보다. 훈련한 만큼, 그 이상으로 했는데 성적을 못 냈다. 너무 죄송하다. 죄를 지은 기본이다"라고 아쉬워했다.



한국 장애인 사이클 대표팀 이도연이 31일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국제스피드웨이에서 치러진 2020 도쿄 패럴림픽 도로사이클 여자 도로독주(스포츠등급 H4-5)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분명 최선은 다했다. 그는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며 "내리막은 어떻게든 할 수 있었는데, 오르막 경사가 너무 많아 극복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기 뒤 보인 눈물에 대해서는 "죽음의 의미를 알았다. 달리면서 정말 죽을까진 걸 정도로 힘들었다. 그만큼 열심히 달렸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도 섞여 있었다. 이도연은 "달리면서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 아버지께서 자전거 폴세트를 해주셨고, 항상 메달 때는 걸 기대하시다 작년에 돌아가셨다.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기쁨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아버지가 맞춰 주신 자전거를 타고 달린 그는 "아버지 보고 싶어서라도 더 열심히 달릴 거다."

"달려라 하니"에서 엄마를 생각하며 달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며 "내일이라도 기쁨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첫 레이스를 마친 이도연은 9월 1일 여자 개인도로(H1-4)에, 2일에는 혼성 단체전 계주(H1-5)에 출전한다. 이도연은 장성한 세 딸을 뒀다. 공무원인 세 딸은 휴가를 내고 한국에서 한데 모여 엄마의 도전을 응원한다. 딸들의 응원을 받은 이도연은 "우리 딸들, 어디에 있던 정말 사랑하는 존재이자 나의 힘이다. 딸들의 응원 영상을 보니 내일은 정말 뭐라도 값진 걸 하나 가져가고 싶다. 딸들을 위해서라도...라며 "(메달을) 못 가져가도 우리 딸들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겠지만, 엄마로서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극적 탈출 아프간 육상선수 '감격의 도약'

태권도 선수와 패럴림픽 무대에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한 아프가니스탄 육상 장애인 대표팀 호사인 라소울리(26)가 꿈에 그리던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라소울리는 지난 31일 2020 도쿄 패럴림픽 육상 남자 멀리뛰기 T47등급 결승에서 힘차게 도약했다.

그는 1차 시기에 4.37m, 2차 시기에 4.21m를 기록했고, 마지막 3차 시기에선 4.46m를 기록했다. 최종 성적은 참가 선수 13명 중 13위. 원손이 없는 라소울리는 지난 1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떠나 17일 일본 도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공항이 마비됐고, 결국 라소울리는 출국길에 오르지 못했으나 국제 사회

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대회에 출전했다. 사일 라소울리는 육상 100m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종목이 27일에 끝나서 출전하지 못했다. 라소울리와 함께 입국한 장애인 태권도 자키아 쿠다다디(23)는 2일 예정대로 태권도 여자 49kg급 K44등급에 출전한다. 쿠다다디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면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패럴림픽 선수가 된다. 태권도는 이번 도쿄 대회에서 처음으로 패럴림픽 정식종목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강진군청 사이클 남자부 종합 우승

8·15 국제사이클대회...나주 출신 나이름 3관왕

한국 사이클 중장거리 간판 나이름(31·삼양사)이 8·15 경축 양양 국제사이클대회 및 전국사이클대회 겸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나주 출신 나이름은 지난 31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경기 여자 매디슨에서 이은희(28·삼양사)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제외경기인 템포 레이스에서도 정상에 오른 나이름은 매디슨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3관왕을 달성, 여자일반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남자 스피린트 예선에서 200m 스피린트 한국 신기록(9초 714)을 세운 임재빈(31·KSPoport)도 경륜트랙팀)이 이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임재빈은 2018년까지 사이클 국가대표로 활약하다가 프로 경륜으로 전향, KSPoport경륜트랙팀 소속으로 이 대회에 참가했다. 역시 KSPoport경륜트랙팀 소속인 정종진(34)은 남자 경륜에서 우승을 거뒀다. 지난 27일부터 5일간 열린 이 대회에서 종합 1위는 강진군청(남자일반부)과 대구광역시청(여자일반부)이 차지했다. 강진군청 박경춘 감독과 대구시청 김형일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받았다. 남자일반부 최우수선수상은 옴니엄에서 우승한 신동원(강진군청)이 차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지난 31일 전남도청에서 김춘진(왼쪽에서 다섯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김영록(왼쪽에서 네번째) 전남도지사가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aT 제공>

aT, 전남도와 손 잡고 장애인 선수 10명 채용

농수산분야 공공기관 중 처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남도장애인 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 선수 1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aT와 전남도체육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춘진 aT 사장과 김영록 도지사(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가 참석했다. 해당 종목은 당구·육상·사이클·론볼·역도 등이 다. 이번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은 농수산분야 공

공기관 중 처음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및 취업지원 ▲훈련·경기·시설에 대한 업무지원 ▲장애인 클럽활동·체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한다. 김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인 생활 여건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 선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2관 인질
- 3관 싱크홀
- 4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5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귀문
- 6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9관 모가디슈
- 7관 씨네카펠 코다, 싱크홀
- 8관 씨네카펠 인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서사무엘 UNITY
일시 : 2021. 09. 14.(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I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 2021. 09. 06.(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